

도내 학급수 전년보다 20학급 줄어

전북교육청, 초·중·고 학급편성 결과 발표... 학생수는 총 6412명 감소

전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2일 기준)를 발표했다.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학교수는 지난해보다 3개교(초2개교, 중1개교) 늘어난 765개교(초 424교, 중 210교, 고 131교)며, 학생수는 지난해 20만1,184명보다 6,412명(3.2%) 줄어든 19만4,772명, 학급수는 지난해 9,068학

급보다 20학급(0.2%) 줄어든 9,048학급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2,857명(2.9%)이 줄어든 9만 4,173명, 학급수는 26학급(0.5%)이 줄어든 4,835학급이며, 적정한 학생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동·읍·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감축했다. (동 28명, 읍 27명, 면 26명) 2020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

다 1,783명 줄어든 1만4,323명으로, 졸업생(2007년생 '황금세대') 1만7,129명보다 2,806명이 줄어들었으며,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1개교(휴교 2개교 제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학교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328명(0.7%) 늘어난 4만9,109명으로 학급수도 지난해보다 41학급(2.1%) 늘어난 2,021학급이 편성됐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3,883명(7.0%) 줄어든 5만1,490명, 학급수는 35학급(1.6%) 줄어든 2,192학급이 편성됐으며, 지속적인 교실 수업여건 개선 노력으로 지난 5년간 학급당 학생수는 8명 정도가 감축됐다. (도시 동지역 기준 2016년 35명, 2020년 27명)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 조정으로 교실 수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돕기 전북대교직원 2300여만원 전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교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실시할만 성금을 모금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까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벌여 모두 2천346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 성금을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전달했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에 나섰다"며 "전북대학교의 작은 정성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교직원들이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실시할만 성금을 모아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교복대금 지급기간 단축·하복 납품시기 연기

전북교육청,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대책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교복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과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처리 부분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기존 교복 납품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후 청구하고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 검사검수 및 청구하고 2일 이내 대금 지급하는 등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자 부

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해 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했으나,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해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받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 학교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복 제작부터 납품, 착용, 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 비대면 상담 호응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적응 및 진로 지도'를, 재학생들에게 '취업성공'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학과 친구들과 교수님들조차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학기는 그야말로 당혹스런 경험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IT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은 꿈꾸던 대학 생활과 달랐다"고 어색함을 토로했다.

전주비전대 관계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 인지,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울러 '장학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주요 관심사를 지도교수와 허심탄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유연근무제·점심시간 시차 운용 시행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시행한다.

또한 예정 돼 있는 간담회와 업무협의, 이사회, 총회 등의 일정을 연기하고 대면회의와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협의는 전화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회의나 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출장과 식

사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조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고 사회적모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체육인들도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온라인 원격 강의 본격

혼란 없이 재택수업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23일 개강과 함께 2,682개의 전체 수업을 온라인 원격 강의로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조치로 전주대는 개강을 3주간 연기하고 개강 시점부터 2주간 재택수업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대는 그동안 미뤄진 개강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수업 부실 우려에 대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왔다.

교수들의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장소(동시 촬영 강의실, 스튜디오)와 기자재(삼각대, 마이크, 웹캠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상시로 운영하는 전담 지원창구를 마

련해 재택수업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해왔다.

또,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한계인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수가 강의를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 외에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장려하고,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의 시스템을 구성해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을 높였다.

학생들의 접속 집중과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전산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됐다. 웹서버를 기존 대비 2배로 증설하고, 온라인 강의 업로드를 위한 VOD 서버도 3배로 늘렸다. 또, 부하발생을 막기 위해 강의 콘텐츠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방식과 순차순번부터 시스템도 도입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Howon HUB시스템' 비대면 수업 적용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호원대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전 비상대책팀을 만들어 원활한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강의 및 과제를 제출, 결과보고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 후 온오프라인 메뉴얼을 마련해 동영상 스트리밍 진행 시 서버 과부하없이 원격수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호원대학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플랫폼인 'Howon HUB'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평생학

습지원본부에서 온라인 강의로 6개월간 진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번 비대면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바존 계정을 사용해 서버 과부하 트래픽 문제없이 교육콘텐츠 소셜 큐레이션(국내외 MOOC사이트로부터 강의 콘텐츠 자동수집, 분류 및 추천)을 지원하는 SNS 기반의 지능형 융복합 교육 플랫폼으로써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강의와 출석체크 지원, 강의 자료실, 포스트, 퀴즈, 플립러닝, LMS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개별적 학습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